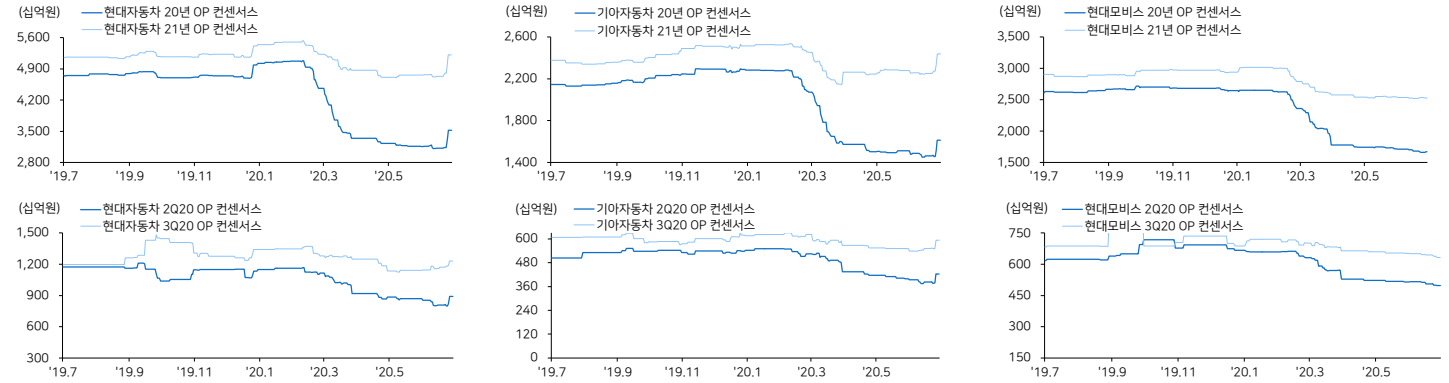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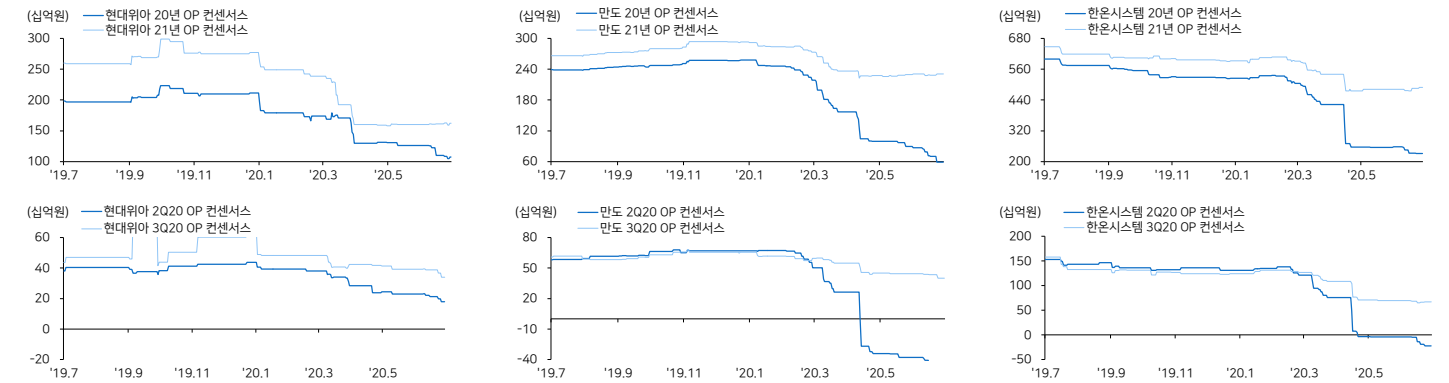


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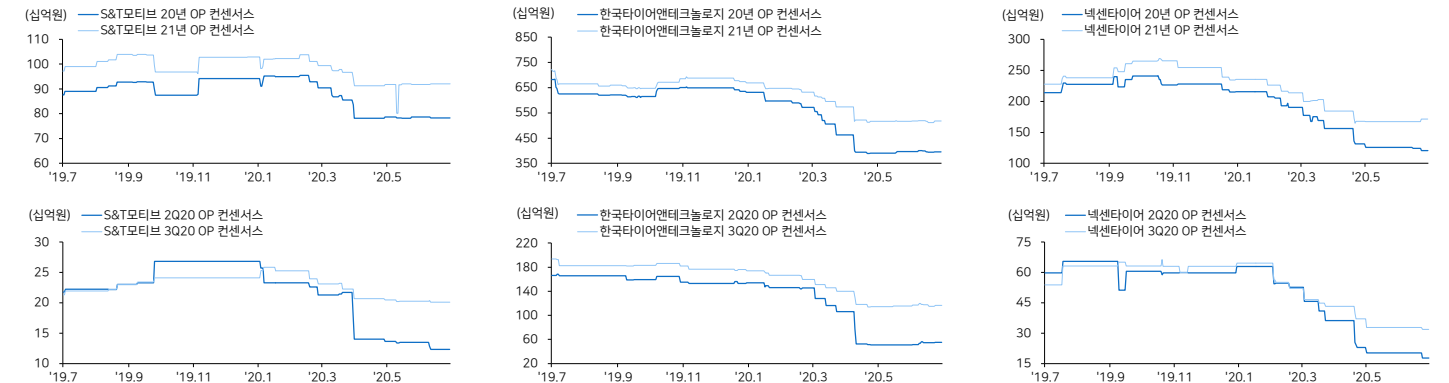
현대차 / 기아차 / 현대모비스



현대위아 / 만도 / 한온시스템



S&T모티브 / 한국타이어 / 넥센타이어



자료: Bloomberg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국내외 주요 뉴스

현대기아차, 하반기 신중시장 반격 출발점은 '인도' (파이낸셜뉴스)

현대기아차가 2·4분기 가장 부진했던 인도시장에서 반격에 나서, 하반기 i20·쏘넷 등 신차 출시와 인기차량의 공급확대를 통해 공중얼어붙었던 수요를 회복 시킨다는 전략.
<https://bit.ly/32W0DBd>

현대차, 쉐어 제네시스 GV80·G80 출시 연기...이유는? (경기신문)

현대차와 쉐어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 SUV GV80과 세단 G80의 미국 시장 판매를 위해 가솔로 연기. 현대차는 전 세계적 확산된 코로나19로 인한 차량 생산 지연 여파로 제네시스 GV80, G80의 미국 판매를 연기하게 됐다고 밝힘.
<https://bit.ly/2D8TPRf>

현대차 정외선 수석부회장이 주목한 '전고체 배터리' (뉴스1)

이재웅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외선 현대차 수석부회장이 올해 5월과 7월 두 차례 만남. 두 번의 회동에서 빠지지 않은 메뉴가 '전고체 배터리'.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준비 중인 삼성SDI의 도움을 받아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 알아봄.
<https://bit.ly/3j0Tz7w>

전기차·수소차로 다 바꿔도 충전 걱정없는 이유 (머니투데이)

휘발유와 경유차 등 내연기관 자동차가 사라져도 충분한 전기와 수소를 공급할 수 있을까. 전문가들은 공급이 충분할 것이라고 분석. 전기차 300만대 충전에 필요한 전력량이 최대부하 대비 0.5% 내외 수준이기 때문
<https://bit.ly/30V6gAG>

한국 전기차시장도 테슬라 돌풍, 현대차 기아차 내년 본격 대결 벌려 (비즈니스포스트)

현대기아차가 전기차시대에도 국내시장에서 압도적 점유율을 이룰 수 있을까? 한국에서 테슬라 돌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 점유율 경쟁은 현대차그룹이 전용 플랫폼을 활용한 차를 내놓는 내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임.
http://www.businesspost.co.kr/BP?command=article_view&num=188971

현대모비스, 글로벌 벤처펀드와 손잡고 미래차 기술 확보 (이투데이)

현대모비스는 미국 실리콘밸리 요소기술 전문 테크펀드인 'ACVC파트너스'와 'MOTUS벤처스'에 총 2000만 달러를 출자.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비해 다양한 방법으로 미래차 핵심기술과 차세대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임.
<https://bit.ly/3JE7uXw>

상반기 전기차 보조금...테슬라·중국 버스가 '싸움' (한국경제)

올 상반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전기승용차 보조금의 43.0%가 미국의 테슬라 차량에 돌아간 것으로 조사됨. 이 기간 테슬라 차량 구매자가 받은 보조금은 900억원에 달함.
<https://bit.ly/2ZZGhGQ>

코로나19 직격탄 빨라진 자동차업계 판도 변화...대형업체 중심 '합종연행' 가속 (글로벌이코노믹)

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세계에서 난립하고 있는 자동차업체가 규모의 경제를 쫓아 제조·판매 능력, EV 등의 기술개발력이 뛰어난 대규모 몇 개의 메이커에 최종적으로 흡수되는 시기를 앞당기는 결과를 낳게 될 것으로 보임.
<https://bit.ly/20XFmVw>

Compliance Notice

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, 대여, 배포 될 수 없습니다.